수해경험 노인의 인적자원과 서비스 활용에 관한 연구

The Use of Human Resource and Emergency Service of Elderly Affected by Flood Disaster

정순둘* · 김고은** · 박지영***

Chung, Soondool · Kim, Go Eun · Park, Ji Young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suggest the way to support flood disaster older survivors with analysing how relief services and their human resources are used. For this stud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84 elderly aged over 65 years from Inje and Pyungchang in Gangwon province where lots of flood damages were done. The results of the study was elderly used human resources of public servant/military soldiers, volunteers as public or official services than as private resources. These results provide the evidence that public or official human resources are very helpful to control their emergency situations because there is hardly any use of their private human resources except for assistance from their family. And it shows that older people are willing to use services of life rescue and information services of their family members safety rather than basic supplies, medical care or medicine providing. With this findings we suggest informing the news of family safety including basic necessaries are highly signigicant. Thus, it is useful for disaster planners to understand building immediate life rescue and accurate information delivery systems. These are relevant to older adults' psychological well-being, thus, providing news of family safety including offering material resources are highly needed for older disaster survivors.

key words : elderly, flood disaster, human resouce, service

1. 서 론

2006년 7월 동안 강원도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수해로 인한 환경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노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수해를 경험한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재해 상황에 의해 물적, 인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노년기의 특징인 건강 약화와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의 저하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높은 위험수준을 가지게 된다(Phifer, Kaniasty, Norris, 1988). 또한 재해사건 이후에도 이주하지 않고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도 주변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Friedsam, 1960), 특히 피해상황과 복구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충격에 대해 취약하여 노인들은 재해 후에 여러 가지 정서적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Ollendick & Hoffman, 1982).

이처럼 재해 경험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건강문제의 해결과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인적자원과 서비스 제공 등의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수해를 경험한 노인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인명구출, 생필품 및 식품 지원, 시설의 제공, 주택의 응급수리, 구호물자 서비스, 심리적 지지, 의료서비스 등의 인적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재해구호법, 1997). 또한 노인들은 주

* 정회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E-mail : sdchung@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석사과정

변사람들이나 물건에 대한 애착이 크고 정신적 의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Baldi, 1974) 수해 경험시 주변의 이웃이나 가족에 대한 소식이나 심리적인 안정의 제공 등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재해를 경험한 노인들은 주변 자원의 결함으로 재해에 대처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지역사회의 도움을 훨씬 덜 받게 되며(Haines, Hurbert, Beggs, 1996), 지원 받을 수 있는 친구, 친척 등의 비공식적인 인적자원의 수도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적다(Thomas & Thomas, 1979).

따라서 수해를 경험한 노인들에 대한 적절한 인적자원과 서비스 지원의 제공은 더욱 중요한데 노인들에게 필요한 인적자원은 정부기관의 공식적 자원보다 비공식적 자원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더욱 효과적이었으며(Thomas & Thomas, 1979), Kaniasty와 Norris(1995)의 연구에서는 정보제공이나 정서적 지지 등의 서비스가 오히려 재해 극복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수해를 경험한 노인들에 대해 한정된 인적자원과 서비스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는 수해를 경험한 노인들의 삶의 질과 복지를 위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수해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연령이 더욱 많은 노인일수록 취약성이 커지기 때문에 연령별로 전후기 노인들의 인적자원과 서비스의 활용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해를 경험한 노인들이 인적자원과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서 수해지역 노인들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6년 호우피해가 집중되었던 강원도 인제군과 평창군에 거주하며 수해의 경험으로 인해 재산피해, 인명피해 등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60세 이상 노인들이다. 각 군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도움으로 수해가 있었던 조사지역으로 선정된 마을에서 이장들의 도움으로 노인들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사전교육을 받은 사회복지 전공 대학원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7년 5월부터 6월까지였으며, 4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구두 동의를 얻었다. 노인들의 경우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원들이 질문을 읽어주고 답변을 들은 뒤 응답에 표기하였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이었고, 총 18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설문조사 도구

설문조사지는 크게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적자원과 서비스 활용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일반적 특성, 건강 및 경제적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활용자원에 대한 설문 문항은 중앙재해대책본부(2003)와 소방방재청(2005)이 실시한 조사 항목을 참조해 개발하였고, 수해 경험시 받은 인적자원과 서비스, 앞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조사하였다.

2.3 통계 처리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모든 결과는 SPSS 프로그램(version 12)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인적자원과 서비스의 비교는 X^2-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1.49세였으며, 성별분포는 남성이 41.5%, 여성이 58.5%를 차지하였다. 학력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이 42.3%, 무학 40.7%, 중학교 졸업 8.2%, 고등학교 졸업 6.0% 순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이하가 80%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았다. 가족형태

에 있어서는 독거노인이 14.1%, 노인부부 세대가 51.1%,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34.2%로 나타났는데 노인들만 거주하는 경우가 65% 이상으로 재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2.37로, 대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답하였고 ADL도 2.94로 나타나 실제로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태는 2.23으로 낮다는 응답이 많았다.

3.2. 수해 경험시 활용한 인적자원

수해를 경험한 노인들이 활용한 인적자원은 표 1과 같다. 수해 경험시 공무원/군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27.5%였으며, 가족이 22.5%, 자원봉사자 22.2%, 이웃이 14.1%, 친척 8.1%, 친구 5.6% 순이었다. 위의 결과, 노인가구의 수해복구 지원 시 공무원/군인, 자원봉사자 등의 공식적인 자원의 활용이 높았고, 이는 재해지역이 노인이 홀로 살거나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가 많은 점과 재해 상황 시 이웃이나 친구, 친척의 도움을 받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볼 때 수해를 경험한 노인들에게 국가에서의 인적자원의 투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 수해경험시 활용한 인적자원을 살펴보면, 74세 이하의 전기노인과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들의 친구, 친척의 자원 활용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의 활용은 전기노인이 7.3%, 후기노인이 1.2%를 나타냈고(X^2=6.233, p<.05), 친척의 활용은 전기노인 9.9%, 후기노인 3.4%로 후기노인의 활용이 낮았고(X^2=5.619, p<.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령이 높을 수록 주변의 친구나 친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들의 활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수해를 겪은 노인 중 고연령층의 노인들에 대한 공식적 지원이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 수해 경험시 활용한 인적자원

(단위: 명, %)

구 분		전체	연령별 활용한 인적자원		
			전기노인	후기노인	X^2
인적자원	가족	72(22.5)	48(20.6)	24(27.6)	.243
	이웃	45(14.1)	32(13.7)	13(14.9)	.154
	친구	18(5.6)	17(7.3)	1(1.2)	6.233*
	친척	26(8.1)	23(9.9)	3(3.4)	5.619*
	공무원/군인	88(27.5)	62(26.6)	26(29.9)	.252
	자원봉사자	71(22.2)	51(21.9)	20(21.9)	.553

※ 중복응답 처리하였음. *p<.05

3.3 수해 경험시 활용한 서비스 및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해 경험 노인들이 활용한 서비스를 표 2에서 살펴보면, 응답자의 42.7%가 생필품 지원을 받았으며, 신체적 치료 및 약품지원을 받은 경우도 전체의 26.6%로 높게 나타났고, 인명구조가 12.6%, 심리적 안정이 10.1%, 정확한 정보 제공이 4.5%, 가족의 소식 제공이 3.5% 순으로 나타나 수해시 물질적 지원의 활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나타낸 서비스는 생필품 제공이 23.4%, 인명구조가 19.3%, 신체적 치료 및 약품지원이 17.2%, 심리적 안정이 14.2%, 가족의 소식이 13.0%, 정확한 정보가 12.9% 순이었다. 이를 노인이 활용한 서비스와 비교해 볼 때, 생필품 제공과 신체적 치료 및 약품 지원의 욕구는 줄어든 반면 인명구조와 가족의 소식 제공, 심리적 안정, 정확한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가 활용한 서비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에게는 수해경험시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신속한 구조와 가까운 가족들의 인명피해 소식 등을 알려주는 것과 수해로 인한 정서적 지지를 위한 심리적 안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일수록 인명구조 서비스를 활용한 것이 높았고 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X^2=5.644, p<.05). 따라서 수해시 고연령층 노인들에 대한 신속한 인명구조 체계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표 2. 수해 경험시 활용한 서비스 및 필요로 하는 서비스

(단위: 명, %)

구 분	활용한 서비스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전 체	연령별 활용한 서비스			전 체	연령별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전기노인	후기노인	X^2		전기노인	후기노인	X^2
인명구조	36(12.6)	19(9.7)	17(18.9)	5.644*	117(19.3)	83(19.2)	34(19.5)	1.332
생필품	122(42.7)	85(43.3)	37(41.1)	.194	142(23.4)	97(22.4)	45(25.9)	.040
신체치료 및 약품	76(26.6)	54(27.6)	22(24.5)	.345	104(17.2)	76(17.6)	28(16.1)	2.904
심리적 안정	29(10.1)	21(10.7)	8(8.9)	.214	86(14.2)	59(13.7)	27(15.5)	.033
정확한 정보	13(4.5)	10(5.1)	3(3.3)	.433	78(12.9)	59(13.7)	19(10.9)	3.691
가족의 소식	10(3.5)	7(3.6)	3(3.3)	.007	79(13.0)	58(13.4)	21(12.1)	1.911

※ 중복응답 처리하였음, *p<.05

4. 결 론

본 연구는 2006년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의 인제군과 평창군에 거주하는 수해경험 남녀노인 184명을 대상으로 수해 경험 시 활용한 인적 자원 및 서비스를 살펴보고,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해와 관련된 연구는 재난상황, 재난피해정도, 사후 대비 시스템 정비, 재난예방을 위한 행정체계 등에 집중되어 왔고 재해를 겪은 개인이나 취약집단의 경험이나 욕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재해를 경험한 취약집단인 노인의 인적자원의 활용과 서비스 활용에 대해 살펴본 것은 의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에게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연구결과, 노인들은 의지가 되었던 가족이나 이웃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인명구조 시스템과 가족이나 이웃의 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연령이 높은 노인일수록 친구, 친척 등의 인적자원의 활용이 취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인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노인의 심리적인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서적 지원이 요구되며, 생필품 지원이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자원연결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소방방재청 (2005). “방재 및 피난관리행정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국립방재연구소.
2. 중앙재해대책본부 (2003). “풍수해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행정자치부.
3. Baldi. J .J.(1974) Anatomy of survey under disaster conditions. Gelontologist, 14, 100-105.
4. Friedsam. H. J. (1960). Older persons as disaster casualties. Journal of Health and Human Behaviour. 1. 269-273.
5. Haines V A, Hurbert, J. S, Beggs J. (1996). Exploring the Determinants of Support Provision: Provider Characteristics, Personal Network, Community Context, and Support Following Life Evev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3). 252-264.
6. James F. Phifer; Krzysztof Z. Kaniasty; Fran H. Norris(1988). The Impact of Natural Disaster on the Health of Older Adults: A Multiwave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1). 65-78.
7. Kaniasty, K., Norris, F. H. (1995). In search of Altrustic Cmmunity: Patter of Social Sopport mobilization Following Hurricane Hugo. Am J Community Psychol. 23(4). 447-477.
8. Ollendick, D. & Hoffman, M. (1982). Assessment of Psychological reaction in disaster victioms, Journal of Community Psycho;ogy, 10. 157-167.
9. Thomas, S. & Thomas, E. (1979). Assessing Long-Term Impacts of A Natural Disaster: A Focus on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19(6). 555-566.